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6 No 3
2024.10.27.

2024 FALL 가을
한울타리

편집: 홍보위원회

| | |
|----------------------------------|----|
| 권두언 | 2 |
| 당회 소식 | 3 |
| 예배예술위원회 | 4 |
| 쉐마행사위원회 | 5 |
| 홍보 위원회/역사편찬 위원회 | 6 |
| 교인 1부 위원회 | 7 |
|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 8 |
| English/Bilingual Ministry | 9 |
|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 | 10 |
| 해바라기 주일학교 | 11 |
| Ransom 중고등부 | 13 |
| 청년 1,2부 | 15 |
| 부부청년부 | 16 |
| 뉴멕시코 나바호 선교 후기 | 18 |
| 마리아 여성회 | 19 |
| 집사회 | 20 |
| 상륙기도회 | 20 |
| 권사회 | 21 |
| 김정선 장로 천국 환송 기도문 | 22 |
| 김정선 장로 장례예배 조사 | 23 |
| 구역소개 시리즈 (6) -북서구역 | 25 |
| 칭찬합니다 | |
| 그림자 섬김이 조이남 집사 | 26 |
| 선교지에서 날아온 소식 - 칠레 | 27 |
| 이집트 | 29 |
| 교우동정 - 뉴저지 소식 | 30 |
| 찬양이야기 I | 32 |
| 편집후기 | 36 |

권두언 - A New Imagination for Asian American Christia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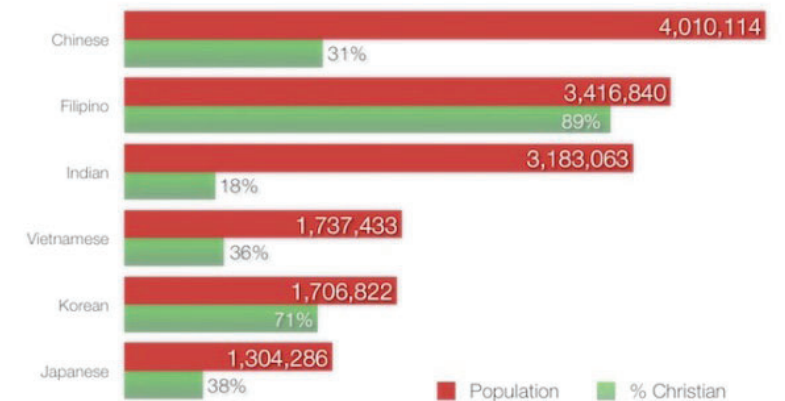
이영길 담임목사

지난번 BNI가 10주년 공개강좌를 열었는데 그 때 주제입니다. 한글 번역을 억지로 한다면 ‘주미 아시아 기독교인들을 위한 비전나눔’ 이라고 할까요? 이 때 나선한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중 가장 중요한 요점은 1세대는 건강한 필요에 의해서 곧 미국으로 오는 분들을 위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문화를 고수했고, 사회봉사 혜택을 받는 그룹이 되어 간 반면 2세대는 어떤 건강한 필요성 때문이 아닌 자기도 모르게 1세대의 모습을 겉으로만 닮아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1세대는 어쩔수 없이 함께 모여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었지만 2세대는 이를 그냥 본받아서 똑같이 안정을 추구하고 수동적인 공동체가 되어 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나 교수님은 1세대 교회는 mission field였지만 2세 교회는 Ethnic Enclave(소수민족 지역사회)가 되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2세 교회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뒤를 돌아보고 고쳐가며 또한 함께 앞을 바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작업을 함께 해 나갈 때 새로운 세계가 곧 열릴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한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뒤를 돌아보고 고쳐가며 또한 함께 앞을 바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귀한 작업을 함께 해 나갈때 새로운 세계가 곧 열릴 것입니다.



지난 7월 정기 당회에서는 총회기구의 하나인 PW(총회 여성회)와 노회 기구 Committee on Ministry (COM),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CPM) 등의 기능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 관하여 또한 교육장로 (Teaching Elder a.k.a. Pastors) 와 사역장로 (Ruling Elder a.k.a. Church Elders)의 역할과 상호관계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장로님들 (PW: 김한나 장로, COM: 이혜승, CPM: 강상철)을 통해 각 기관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미국장로교 전반에 관한 생생한 현장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전반적인 교회 조직에 관하여 윤경문 목사님과 이영길 목사님의 Teaching Elder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접할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음에 모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례주일에 성인세례/유아세례를 받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성인세례자: 유우진

유아세례자: 방재준(Aaron Jaejune Bang, 2023/6/1, 방수영/김지은)

유나연(Elena Yoo, 2023/5/1, 유우진/김정인)

임하리(Jessica Hari Lim, 2023/3/11, 임극유/이수경)

9월 정기 당회에서는 정은택 Youth Group 전도사를 우리 교회가 속한 보스톤 노회에서 미국 장로교 목사 안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강상철 장로를 Advisor로 노회에 추천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안밖으로 활발히 교류하며 교회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는 부부청년부가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6개월의 교육을 수료한 공동의회 추천 장로(김대식), 안수집사 (엄순호, 이수경, 임극유) 들을 안수하기로 승인하고, 정영선 집사를 권사로 임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배예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대식 추천 장로를 장로 안수와 동시에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의 교회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6일 : 성례주일,정평환주일

10월12~13 : youth Lock-in day

10월 12일 : 장학기금모금 남선교회주최 골프대회

10월 13일 : 청년부 헌신예배, 전교인 야유회

10월20일 : 종교개혁주일

10월 27일 : 청지기 헌신주일, 창립기념 탁구대회.

11월 3일 : 부부청년부헌신예배

11월 9일 : 찬양과 기도의 밤

11월24일 : 추수감사주일, 창립 71주년 기념예배.

11월 30일 : 쉼의 밤 행사

봄부터 여름까지 예배예술위원회의 주요 일정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예배:

5월 19일 성령강림 주일에는 김준, 이윤찬, 최재민 세 학생들의 견신례가 거행되어 교회에 큰 기쁨과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6월 30일 성례주일에는 유아 세례식과 성인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에는 방수영/김지은 부부의 아들 방재준, 유우진/김정인 부부의 딸 유나연, 임극유/이수경 부부의 딸 임하리 세 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유우진 교우님이 성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이날은 이상혁 목사님의 초청 설교로 예배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뉴멕시코 단기선교단 파송예배가 열렸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선교 여정을 축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9월 8일 진급주일에는 라승찬 교수님의 초청 설교와 EM/BM의 연합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신임 제직 임직식이 거행되어 정영선 권사님, 김대식 장로님, 이수경, 임극유, 엄순호 안수집사님이 새롭게 임직을 받으셨고, 예배 후에는 전교인 오찬이 준비되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각 부서에서도 활발한 활동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가대:

파트 독창자로 섬겨오시던 구자운(베이스) 교우님과 윤동은(테너) 교우님이 8월 25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귀국과 학업을 위해 타주로 진출하셨습니다.

8월 예배의 헌금송은 한가족 축제에 참여했던 그룹과 구역이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방송준비팀:

예배 슬라이드 준비팀에서는 하은혜 집사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헌신해 주고 계시며, 출타 시에는 최정우 집사님께서 그 역할을 맡아 봉사하고 계십니다. 방송팀에서는 1부 예배를 위해 김영돈 집사님과 김영순 권사님이, 2부 예배를 위해 이석원 집사님, 채진병 집사님, 이장현 집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동시 통역팀에서는 이지우 교우님이 필라델피아로 이주하셨지만, 이현주 집사님께서 새롭게 섬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봉사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팀:

주일 찬양 외에도 5월 4일과 8월 24일 두 차례 찬양과 기도의 밤을 열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6월부터 주일 찬양곡을 교회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9월 새로 임직받으신 김대식 장로님께서 예배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김경태 집사님께서 새롭게 예배위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 되어 예배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쉐마행사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부위원장 최학수 집사

쉐마의 밤은 유초등부, 유쓰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3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쉐마의 밤은 “교회의 미래를 잇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부부청년부와 구역을 이어주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서3구역에서 정성껏 해물덮밥을 준비해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육신의 만족감을 선사해 주셨고, 부부청년부를 대표하여 교인위원회를 섬기시는 김호영/박영롱 부부가 촛불을 밝히면서 9월 쉐마의 밤을 시작하였습니다. ‘망키와 찬양을’ 시간은 부부청년부 찬양팀과의 협연으로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졌고, 이어서 우리동네 쉐마양상블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들 (조은, 지애, 지인, 호중, 유준) 이 육혜진 집사의 지휘에 따라 아름다운 선율로 “Amazing Grace”를 연주하였습니다. 듣는 성도님들과 위에서 보고 계실 우리 하나님께 흐뭇해 하시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부청과 북동구역에서 함께한 “성장하는 믿음의 여행” 스킷은 듣는 이들에게는 감동을, 읽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헤들리 장로님의 각본이 특별히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두 부서가 같이 부르는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은 교회의 비전과 나의 믿음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감동이 식기도 전에 신보경 집사가 무대에 올라서 “다 함께 울동을”을 통해 성도들의 관절을 풀어 아이들처럼 울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는 “400 년을 넘어”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journey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까지 이어지는 3세대를 넘어서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쉐마의 밤은 앞으로도 “3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위원회/역사편찬 위원회

위원장 이혜승 장로
부위원장 배광현 집사

1. 한울타리 여름호 발간 (7.7.2024)

바쁘신 가운데도 교회 소식지를 위해 원고 날려주시는 위원회 장로님들, 각 부서 장로님들,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들을 한울타리를 통해 함께 나눠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사랑과 도움에 힘입어 한울타리가 계절별로 탄생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밤샘 작업하며 함께 달려주시는 편집위원분들 (김하나, 배광현, 윤경문, 정유미, 정은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2025년 달력 오더 완료 (8.24.2024)

지난해 수량과 같은 벽걸이용 (200개) 탁상용 (250개) 달력 오더를 마쳤습니다. Thanksgiving 전후로 교회로 배달될 예정이며 12월 첫 주 부터 교우님들께 배포 될 예정입니다.

3. 홍보부에서 함께 일할 일꾼을 구합니다. (문의: 이혜승 장로 - epiyodler@hotmail.com)

1. 교회 웹사이트 유지 및 관리자: 현재 저희 교회 웹사이트(kcboston.org)를 전담하여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 시간에 맞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기본 지식만 있으시면 되는 봉사자리이며, 혼자 독박쓰는 자리 아니오니 안심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YouTube Channel 관리자: 2024년이 가기 전에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 유튜브 채널 maintenance를 해보려고 계획중입니다. 불필요한 영상들은 내리고 편집이 필요한 영상들은 편집을 좀 해서 다시 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영상작업을 함께 해 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도 받습니다.

3. 교회 행사 사진/영상 담당 기자: 교회 행사나 모임시에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교회 역사를 남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고가의 사진기를 보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별한 사진찍기 능력이자 아니어도 됩니다. 내 아이의 사진/ 셀카 한 번쯤 찍어보신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매 행사 때마다 봉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명이 돌아가면서 하게 될 예정이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한울타리 기자: 한울타리에 실을 기사들을 모으고, 발로 뛰기도 하며 폭넓게 교인 분들과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We are looking for English speakers as well. Contact Heather Lee (epiyodler@hotmail.com) if you are interested.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도 지원하세요. 영어 편집자도 필요합니다.

4. 이벤트, 부서/구역 홍보

각 그룹의 이벤트나 부서/구역 홍보가 필요한 부서는 홍보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함께 공조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인 1부 위원회

위원장 정광근 장로
부위원장 김호영 교수



교인1부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이 직분이 하나님의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새교우 분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건 진실로 축복입니다.

9월15일에 시작된 2024년 3번째 새교우반은 3번의 모임을 통해 저희 교회와 미국장로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3번째 마지막 모임 후

새교우 분들을 환영하는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Sam Kim/이혜승 장로님 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함께, 오늘로 새교우는 끝이고 이제 헌교우 되시는 거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만끽하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반면 또 각자 경험한 간증들과 개개인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수 많은 감사와 감동까지 더해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새교우 환영반을 수료하신 새교우 6가정을 소개합니다. 부부청년부에 속하신 4가정 (이진수/조민주, 오치우/정다운, 김원주/박윤희, 남재현/유니스성)과 최술이/김형진 가정(중앙 3구역), 그리고 김신옥/박광석 가정(중앙4구역)이 이번 9월 새교우반을 수료하시고 각각의 구역과 그룹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존 교우분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새교우 가정분들을 보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보스톤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서로 만나고 알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걸 정말 너무도 작은 확률 속에 우연이라고 말하기 힘든 특별한 인연이고 만남이라는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으시고 이 아름다운 만남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스톤한인교회는 새롭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과 기존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들은 더 큰 사랑에 꼭 잠길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서로의 삶과 관계를 통해 초대하며 더욱 건강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름다운 만남이 더 큰 열매로 자라 보스톤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모든 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기쁨과 서로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교회 안 밖으로 나누는 큰 나무로 성장해 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장로

지난 7월 22일, 본교회는 밀알 장애인 사랑의 캠프를 위해 \$1000을 후원하였습니다. 밀알캠프 담당 목사님께로부터 온 감사 메일을 쉼어합니다.

이영길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와 목사님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29회 밀알장애인 사랑의 캠프가 (7/18~7/20) 잘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Volunteer 청년들, 밀알 staffs 들과 여러 업계에서 자원하여 섬겨주신 분들, 모두 600여명의 많은 인원들이 모여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과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표한대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모습, 벌써 내년이 기다려진다는 그들의 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는, 2박3일 캠프를 마치고 나오는 저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탄사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후원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온 교회와 목사님에게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저지 밀알 간사, 구정모 목사 드림



English/Bilingual Ministry

Elder Sang Kang

It's October. This means that we are celebrating our 2nd anniversary this month. Two years ago, we had the first English worship service on the last Sunday of October with a few members. Since then, we have gone through two services per month, three services per month, and starting last month, we are having worship services every Sunday. Although organizing the worship services every Sunday is challenging with limited human resources, we think that it is the time that we need to step up.



EM/BM stands for English Ministry and Bilingual ministry. The service adds another service option at our church. It is not a special or unique ministry. Instead, we are providing folks who are more comfortable and familiar with English worship service. We can see how God has been blessing the service for the past two years giving us more stability and consistency.

As the English service is becoming a vital part of our church, we are looking forward to our third year and beyond. Of course we will go through some growing pain. Such as finding a larger worship space and more involvement from members of our service. However, we thank God for where we are, and how He will bless our service in the future. God is good!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

최현구 장로

올해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 찬양과 기도의 밤을 기획/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2024년도 3/4분기 '찬양과 기도의 밤'이 8월24일 토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5월에는 청년1,2부 연합 찬양팀이, 그리고 이번에는 부부청년부 찬양팀이 준비하여 찬양과 기도의 밤을 인도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참 예배자'라는 제목의 이영길 목사님 말씀까지,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곧 다가올 '11월 찬양과 기도의 밤'을 기대해 봅니다. 부부청년부 찬양팀(김새롬, 김호영, 박영룡, 박은빈, 박준석, 이정호, 최효영, 황태환), 예배찬양팀의 rhythm section으로서 이번에는 찬조로 섬기신 천동혁 형제(청년2부), 안성민 형제(청년1부), 그리고 방송실에서 도움 주신 김영돈 집사님, 예배 후 친교를 위해 다과를 준비해주신 김연희, 김희현 집사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해바라기 유치등부 주일학교

박예원 전도사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ECC 예배당 안에서 따사로운 가을 햇빛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선플라워를 담당하고 있는 박예원 전도사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선플라워의 7-9월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희는 지난 6월 VBS를 무사히 마치고 처음으로 교사 방학을 가지고 여름기간 예배 시간을 변동하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추어 선플라워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름기간에는 교사분들께서 그간 수고해주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대부분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 방학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다양한 부서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예배 시간을 100분에서 60분으로 변동하게 되면서 적은 숫자의 교사분들로 예배가 이어지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선플라워는 매주 18분의 교사분들과 7명의 스태프분들로 총 25분의 사랑으로 매주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름기간에는 절반도 안되는 숫자로 예배를 이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내 다른 주 혹은 다른 국가로 방문 혹은 이동하게 되시며,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평소보다 적은 숫자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아이들과 훨씬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있어 많은 분들이 올 해도 선플라워와 함께 하시겠노라 결심해주셨고 새로운 분들 또한 기꺼이 저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의 마지막을 지나며, 모든 교사분들과 아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추수감사절에 느끼는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는 기쁨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는 9월에 많은 이야기 보따리들이 있었습니다. 9월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첫 주에 졸업예배와 전체 교사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2명의 5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었는데,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주시고 양육해주신 윤만강 윤원길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날 예배 이후에 열린 전체 교사 워크샵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내어주시고 참석해주셨습니다. 올 해의 목회 방향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모으고, 유년/초등부 선생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모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함께 준비해주신 심진희 부장집사님, 정혜운 부감 선생님, 그리고 박영애 부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주는 진급 주일로서 수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반에 올라가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킨더에서 1학년으로 올라온 아이들이 씩씩하게 초등부 형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스로 올라간 12명 대부분의 아이들 모두 유스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9월 15일에는 특별히 추석을 기념하여 아이들과 성경공부 시간에 꿀떡을 먹으며 우리 나라 고유의 명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주는 PTA 회의를 가졌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모든 리더진의 자리가 회의 전부터 채워진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이 자리를 맡아주시고 올해도 함께해주시겠노라 마음을 모아주시신 이한나, 김종금, 김고은, 최미래, 그리고 박재미 꽃잎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는 Picture Day로 보냈습니다. 매년 귀한 손길로 선플라워의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도록 섬겨주시는 윤병준 선생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7-8월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는 감사한 시간이었고, 9월에는 연달아 수많은 행사로 분주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분들과 함께 선플라워를 세워가고 있음을 여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올 해의 선플라워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으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며 섬기고 나아가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늘 기다리고 바라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공동체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함께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학년 졸업예배]



[PTA 회의 - 오랜 시간 선플라워를 섬겨주신 선생님들과 작년 회장단 감사 시간]



[유년부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리더진 - 강상철 장로님의 부재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테크팀과 찬양팀 선생님들]

Picture Day 사진 링크:
thekoreanchurchofboston.smugmug.com/Sunflower/2024/2024-09-29-Sunflower

Ransom Youth Group

정은택 전도사

안녕하세요, 유스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택 전도사입니다. 저희 유스그룹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충분히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수행하여야 했던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았고, 그래서 학기 때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숫자로 알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경우는, 중등부/고등부 두 반씩 나누어서 안성민 선생님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신 모든 교사분들과 안성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초에는 뉴멕시코로 지역선교를 떠났는데, 유스그룹에서는 Noelle과 Jack, David, 그리고 부지형 선생님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Noelle and David가 선교에 다녀와서 자신들의 후기를 잠깐 나누어주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여름 액티비티로 Six-flags에 갔습니다. 당일 날씨 예보에 따르면, 천둥 번개가 동반된다고 했고, 차를 타고 가는 중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도착해서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거의 비를 맞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날씨 속에서 실컷 놀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날씨 예보 덕인지, 사람도 거의 없었어서, 저희 교회가 빌린 것이라고 말해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덕분에, 한 학생은 제일 재밌던 Super-man을 10번이나 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타고 와서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다른 자리로 가서 타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름 액티비티를 잘 마칠 수 있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아이들을 믿고 보내주신 부모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는 선플라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때는, Joseph(10학년)과 Mina(11학년)가 함께 찬양을 인도하며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교육 1부의 두 부서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연합예배 사진과 Joseph과 Mina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진]



마지막으로, 9월에는 선플라워에서 잘 훈련받은 새로운 6학년 친구들이 진급주일을 기점으로 유스그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6학년들은 늘 사고몽치이지만, 유스그룹을 통해 이 사고몽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성장시키시고 형성하실지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 유스그룹에서 잘 적응하고,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여러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1,2부

담당 교역자 윤경문 목사

올 가을에는 저희 청년 1, 2부에 새교우 청년들이 여러명 새롭게 join하여서, 새로운 청년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활기차게 가을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 20일에는 개강예배를 청년 1,2부가 함께 드렸고, 9월 29일에는 새교우 환영 activity로 apple picking(Honey Pot Hill Orchards Farm)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에서 풍성한 사과들도 같이 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감사하게도 권사회에서 청년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맛있는 점심식사를 만들어주셔서 풍성한 식사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귀한 사랑의 손길로 식사를 만들어주신 권사님들께 청년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10월 첫 금요 예배시에는 'Welcoming Friday Service'로 드렸고, 10월 13일 주일에는 청년 1,2부가 함께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담아 청년 1,2부 헌신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11



월 8-10일(금-주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1, 2부가 합동으로 수련회를 가집니다. 이번 수련회는 Pilgrim Pines에서 가지며, "Why us, why now? : Why meet as Young Adult, and how can we be used for God's Kingdom"이란 주제로, 강사 목사님으로 강인호 목사님(헤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청년부

민동국/박영애 부부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알록달록 단풍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부부 청년부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부부청년부 방학을 마치고 8월에 다시 모임을 재개하였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말씀경건회, 베이비샤워, 형제자매모임으로 많은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8월24일에는 부부청년부에서 준비한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9월에는 많은 새교우 분들이 오셔서 새신자 환영회와 말씀경건회, 베이비샤워, 조모임, 북동구역과 함께 한 특별한 점심식사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나바호 뉴멕시코로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김호영 형제와 김희진 사모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9월에는 새로운 생명이 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우식/김승현 가정에서 태어난 김은하 또 김홍민/최희주 가정에서 태어난 김서하 입니다.



특히 지금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는 김은하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주시고 또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습니다

지난 9월에 태어난 김은하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기증자를 긴급히 찾고 있습니다. 은하는 출생 직후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SCID)이라는 희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질환으로 인해 은하의 면역 체계는 거의 기능하지 않으며, 작은 감염도 은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은하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능한 한 빨리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은하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합한 기증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은하가 건강한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my.bethematch.org



1. 온라인 등록하기

귀하의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의학적 질문에 답하십시오.



2. 볼 안쪽 세포 채취

귀하의 샘플이 검사되고, 귀하의 유전자 유형이 NMDP 등록부에 추가됩니다.



3. 환자와의 매칭

기증자와 환자의 유전적 복잡성 때문에 환자와 매칭되는 데 몇 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기증하기

환자와 그 가족들은 귀하가 필요할 때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누군가에게 치료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 나바호 선교 후기

김호영 교우

2024년 7월 13일에서 20일 7박8일 일정으로 제6차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 대상은 미국 뉴멕시코에 격리/보존되고 있는 나바호 원주민이었습니다. 3세대로 구성된 10명의 선교단원들은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의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핵심적인 사역은 그들에게 좋은 공동체(교회,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영길 담임목사님과 국내 선교 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성완 장로님을 통해서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크고 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공동체 전체가 통탄하며 거주지를 옮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뉴멕시코의 커다란 감옥에서 살게 되었고, 강제로 정착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5년 만에 가는 뉴멕시코 단기 선교라 다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 때, 이요한 목사님께서 선교 모임에 오셔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평신도 사역자 빌립 집사에 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첫 이방인 사역을 한 평신도 빌립 집사는 당시 소외당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바호 부족 사람들이 같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격리/보존되는 상황이 사마리아인들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 이루어진 선교팀이 차별받는 그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 집사 사역의 열매처럼 뉴멕시코에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하셨습니다.

3세대로 구성된 10명의 선교단원들은 이미 받은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뉴멕시코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이덕재 선교사님의 지도 아래 미국 텍사스 휴스턴 단기 선교팀과 연합하여 7일간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아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아상을 그리는 그림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칼림바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시간, Youth 그룹이 주축이 된 찬양 시간, 3세대가 함께 준비한 말씀 시간 등을 통해서 은혜로운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밖에 나오니 반원의 쌍무지개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확히 맞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단원이 고백하길, “너희들의 섬김으로 내가 기쁘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 같은 곳에 사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지만, 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바호 원주민들에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 그들 뿐만 아니라 저희 단기선교팀이 좋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3세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혜롭게 선교팀을 이끌어주신 안성완 장로님, 이선영 장로님, 열매 있는 사역으로 헌신하신 김희진 사모님, 조나현, 김호영, 정윤원, 부지형 집사님, 나바호 현지인과 하나가 된 Jack Kim, David Kim, Noelle Rhee 우리 Youth 그룹 가족들, 이번 선교에 참여한 73명의 나바호 아이들,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이미 시작한 영적 전쟁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 후원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가게 될 단기 선교팀에게 아래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곳에 있기에 하시면 됩니다. 기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3세대가 하나되는 좋은 공동체를 선물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리아 여성회

회장 이소은 집사
부회장 김연희 집사

마리아 소식입니다.

지나갈까 싶었던 그 뜨거웠던 무더위가 가고 이불 밖을 나오기 싫을 정도로 쌀쌀한 가을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팬데믹 동안 교제의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마리아여성회에서는 친교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6월 30일 마리아 야유회를 2부 예배 후 야외에서 하려 했지만, 비소식으로 인해 community hall 에서 하였습니다. 예배 후 장소 이동 없이 교회에서 만남을 갖게 되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모임은 9월 1일이었습니다. 2부 예배 후 Room5에서 모여서 임원들이 준비한 콩나물 비빔밥과 디저트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번째는 전교인이 함께 준비한 9월 15일 재직 임직식 비빔밥 잔치입니다. 한달여의 준비과정 중에 모든 일꾼이 하나되어 기도로 준비하고 솔선수범으로 행동하여 당일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300여개의 비빔밥을 준비하여 전교인의 손길이 함께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각각의 재료들이 어우러져 한 그릇의 비빔밥이 되어 맛을 내듯 각각의 개성들의 사람들이 한곳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됨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이 다 가기전에 마리아 여성회는 한번의 친교모임을 더 하려합니다. 물론 마리아 여성회 회원이 아니시거나 여성이 아니신 분도 환영합니다. 보스톤한인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품으며 사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회

회장 배광현 집사

집사회 소식을 전합니다.



월 14일,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오래된 교회 쓰레기와 내년을 위해 교회 앞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장로님과 집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월 13일에는 전교인 피크닉이 있었습니다. 우천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가진 야유회로 교우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도와주신 집사회 임원진, 한국, 전재완, 이태경, 장원석, 정광근 장로님, 최현구 장로님, 이정규 장로님, 마리아 집사님들 등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록기도회

회장 이재명 집사

상록기도회 가을호 소식을 전합니다.

7월초 이상구 권사님의 96세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조옥동 권사님이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셨습니다.

7월21일은 상록기도회 헌신예배를 은혜속에 가졌으며, 이영길 목사님께서 “견고하게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전하셨고, 정영선 권사님의 지휘로 “O How He Loves You and me”를 영어로 특송했습니다.

9월14일에는 집사회가 주관하는 가을맞이 대청소에 상록기도회에서 잡채와 떡볶이를 제공했습니다.

9월15일에는 재직임직식때 정영선 권사의 안수가 있었습니다.

9월 21일에 (고)박기춘 권사님 장례 추모예배를 가졌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함께 애도하였습니다.

권사회에서는 여름 동안에 두 주에 걸쳐 텃밭 채소를 상록회 회원 및 여러 교우들과 나누었습니다. 텃밭을 하는 몇 몇 분들의 정성과 땀으로 수확한 고추, 호박, 가지, 오이, 부추, 깻잎 등으로 가득찬 바구니들은 다과실을 순식간에 farmers market으로 바꾸어 놓았고 손님(?)들이 붐비었습니다. 와~아 정말 즐거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잡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끼리의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빔밥을 준비했는데 그 ‘권사회표’ 비빔밥 냄새를 맡은 지나가던 많은 교우분들까지 같이 나는 풍성한 친교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9월에는 청년 1, 2부를 위해 돼지 불고기와 양배추 쌈을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했던 작은 수고에 큰 감사로 답을 해준 청년부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을 먹어 그 감사편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일단 너무 맛있었고요...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늘 권사님들의 손맛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저희를 위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영혼육으로 너무 든든하게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집에 갈까 말까 고민 하셨었다는데 내려와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권사회는 교회 곳곳에 봉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 돕고 주님의 내리사랑을 베풀기에 힘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품으로 돌아가신
우리 모두의 좋은 친구 고 김정선 장로의 삶을 함께 되돌아보며,
기억하고 또 celebrate 하는 추모의 예배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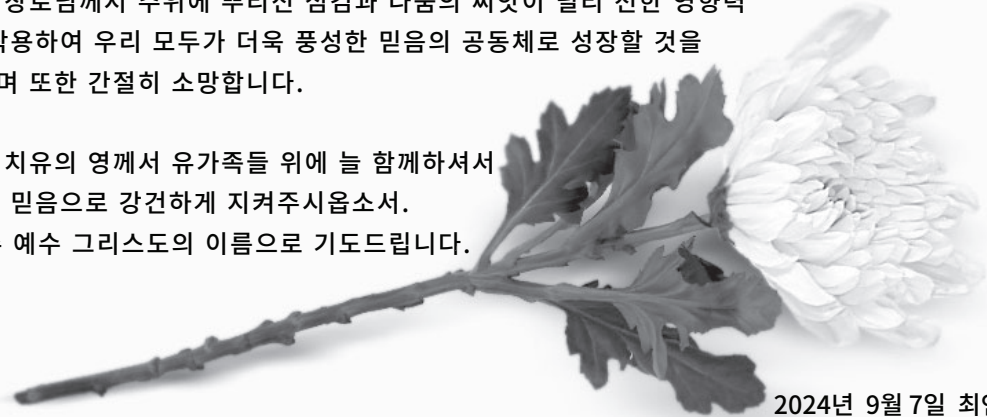
아끼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낸 가족 친지들의 인간적인 헤어짐의
아픔이 크지만 우리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영이 저희들의 상한 맘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에게 밀려 왔던 엄청난 짐으로부터
마침내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난히도 자연을 사랑하셔서 산과 바다를 즐기시던 고인을 기억합니다.
자녀들과 온 가족이 찰스강에서 카누를 타던 일이며, 등산 동우들과 함께
뉴잉글랜드의 여러 산들을 오르시던 일...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Narragansett Bay의 등대와 해변을 즐겨 찾으시던 고인을 생각해 봅니다.

고인에게서 가지신 그 많은 재능을 늘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사랑과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렇게 장로님께서 주위에 뿌리신 섬김과 나눔의 씨앗이 널리 선한 영향력
으로 작용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며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와 치유의 영께서 유가족들 위에 늘 함께하셔서
이들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9월 7일 최연일 장로

김정선 장로 장례 예배 조사 (Eulogy)

이혜승 장로

안녕하세요 이혜승입니다.

Hi I'm Heather. Before I start,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elder Jason's family for letting me do the eulogy for him. I really appreciate it. It is a great honor to do his last assignment. Wish me luck to finish without getting emotional.

김정선 장로님과 조순래 권사님은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보스톤 아빠 엄마 뭐 그런? 올리비아와 에디는 저의 남편이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 학생으로 만났던 친구들이고요. 30여년간 이어온 장로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을 몇 분 안에 써머리하는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로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구 남친이자 현 남편인 Sam과 비밀데이트도 아니었는데 아무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그 때, 매의 눈으로 조순래 권사님과 함께 저희들 관계를 한 눈에 알아보셨던 분, 결혼할 때 저희들의 10년 연애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시며 진심으로 기뻐해주셨던 분, early adaptor 이셨던 장로님, 팬데믹 전에도 앞서 가셔서 SKYPE로 화상미팅을 하셔서, 빼도박도 못하고 갓 돌 지난 애 한 손으로 토닥토닥 재우며 한쪽엔 커피를 사발로 장전해 놓으며 미팅 참가하게 하셨던 분, 한 쪽 눈 시력이 거의 없으실때도 스노우보딩으로 팔 뿌러뜨려 먹은 절 도우시겠다고 저희 집 기사생활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청하셨던 분, 물론 음식담당 조순래 권사님은 2 for 1 으로 함께 오는 보너스였고요. 당시 저희 애가 조순래 권사님께 "I like that girl!" 이라는 명언을 탄생시켰던 추억이 있기도 하고요. 제 편의를 봐주신다고 아침 8시에 저희 집으로 숙제검사하러 출근하셨던 분, 교회 60주년 기념 책자 편찬위원들 뉴햄프셔 산 속에다 1박2일 가뉘놓고 일시키시며 홍일점이라고 각별히 우대해주셨는데, 저를 passenger seat 에 앉히시고 나머지 건장한 4명의 집사님들을 차 뒤에 구겨앉게 만드신 카리스마 짱 젠틀맨, 24시간 돌아가는 장로님의 아이디어 뱅크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를 자꾸 저에게 숙제로 보내시던 분, Olivia 의 딸 Chloe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딸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10년 넘게 공들여 강조하시던 분, 투병중에도 키모하시고 기력만 회복하시면 여기저기 다니시며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시면서 사무실에 앉아 일만 죽어라하는 절 진심을 다해 열심으로 약올리시던 분, 장로님 회사 기밀문서까지 탈탈 다 털어서 보여주시며 저의 창업을 진심으로 도와주셨던 분 등등등 한마디로 써머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받은게 많아서 만년 제가 '을' 일 수 밖에 없는 구조, 관계라 장로님께 저는 예나 지금이나 철저한 '을'입니다.



사실 오늘 eulogy를 하는 것도 한7개월 전 즈음에 장로님이 주신 숙제입니다. 제가 내드린 숙제제출을 하시며 "이제 내 차례" 라고 하시며 불쑥 조사를 부탁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날 살짝 불안했던게, 원래 저희가 맥도날드 회동을 하면 늘 커피 한 잔 사주시곤 이따만큼 숙제를 주고 가시거나 아님 저한테 커피셔틀을 시키시거나 그랬는데, 그날은 Panera에서 만나자고 하시며 샌드위치도 사주신다고 하시는겁니다. 순래씨가 사신다고 하시면서.. 살짝 '불안하다 뭐지?' 했죠. 그 때 들었던 생각은 '아 장로님 참 멋지다. 나두 내 장례식을 지금부터 디자인해놔야겠구나' 당시엔 이 숙제의 due date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가 마지막 숙제가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돌아가신날 권사님께 부고소식을 듣고, 장로님과 최근까지 얘기했던 카톡방을 열어봤습니다. 특내용을 거슬러 위로 위로 위로 scroll up을 해가며 아 이런 얘기를 했었지 저런 얘기를 했었지 하며 읽다보니 거의 톡의 90% 가 장로님이 숙제주시고 제가 숙제 검사 받고 한 거더라고요. 최근 들어 살짝 갑을 관계가 바뀌나 싶었는데, 제가 숙제를 드리고 장로님이 제출하시고 하는... 무늬만 갑이라도 갑의 기쁨을 누릴 시간도 안 주시고 그냥 썩하니 가셔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살짝 장로님 지금 계신 곳에서도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건 아닐까 의심해봅니다. 오늘이 장로님 장례예배인데, 잊지않으시고 여기 와 계시죠? 여기 우리 중에 계시다고 믿고 대놓고 몇가지 감사드릴라고 합니다.

장로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반짝이게 만드시는 능력자 우리 장로님. 이제 밤하늘에 가득찬 별들을 보며 장로님 생각이 나겠죠? 주변에 특히나 함께 열심으로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면 가장 가운데서 반짝이고 있는 그 별이 장로님이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혼자 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많은 위로와 사랑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앞으로의 남은 인생 당신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크리스찬은 이런 것이다라는 확신의 아이디어를 심어주셔서

마지막으로 장로님,
마지막 주신 숙제, 오늘 조사, 맘에 드시나요?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참 잘했어요" 도장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늘 도전하고 달리는 삶을 살아내셨던 장로님, 쉬실 때가 되셨나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토닥이며 부르셨으리라 믿습니다. Elder Jason, we will miss you utterly and forever. Rest in peace. We will all meet you there someday. love you! Thank you!

우리 구역모임은 매월 한차례 주일오후에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며, 때로는 교회에 남아 계시는 교우들도 초대해 함께 식사교제를 하고, 최현구 장로님의 멋진 기타인도로 찬양을 드린 후, 성경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공부해 모두가 성경교사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가족들은 윤영자 권사/이장현 집사, 김종희 권사, 박신영 장로/김영순 권사, 최현구 장로/김희현 집사, 김성진 교우/김나리 교우 가족들입니다. 윤영자 권사님은 꽤 오래 주일 찬양팀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찬양을 좋아하시고, 달란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들되시는 이장현 집사님은 잘 나서지는 않으시지만, 오보에 전공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유쾌하신 분으로 방송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종희 권사님은 활발하신 성격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셨고, 수요일여성성경공부를 담당하시며 활동적이신 데, 이제는 여행과 손주들 챙기느라 자주 뵙지 못합니다. 박신영 장로는 휴무를 즐기며, 소그룹 성경공부와 구역장을 맡아 섬기며 병원에서 Biomedical research를 하고 있고, 김영순 권사는 마리아 여성회, 권사회, 찬양대, 그리고 가끔씩 방송실 봉사도 하며 바쁘게 지냅니다. 재능이 많으신 최현구 장로님은 교회에서 맡은 교인위원장외에도, 주일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바이오텍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희현 집사님은 이제 두 아들이 대학에 가고, 막내를 챙기시면서, 마리아 여성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한국 바이오텍의 미국지사로 발령을 받아 보스턴으로 이주한 김성진/김나리 교우가정은 드물게 4자녀를 둔 애국자(?) 가정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쓰며, 바쁜 보스턴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김나리 교우님은 이번 학기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고, 주일 2부 예배 후 친교시간에는 어린 막내 예뻐미가 놀 수 있도록, 두 분은 놀이터에서 발견됩니다. 여러가지 다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꽤 계시어서 아쉽지만, 모든 가정들이 주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구역은 다른 구역들과 연합모임을 통해 새로운 교우들도 사귀는 시간을 가지고자, 연초부터 연합으로 구역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3구역과 연합모임을 하면서 새로운 교우들을 많이 만났고, 또 함께한 성경공부도 새로운 분들의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5월 한가족 예술제 때에도 중앙5구역과 연합모임으로 준비해서 참석했는데, 두 구역의 달란트가 모여 많은 시너지 작용이 있었고, 8월말에 함께 주일예배 헌금송을 위해 따로 연습도 하면서 좋은 친교의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구역과 연합모임을 통해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함께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북서구역/중앙 5구역 - 8월 25일 주일 2부 예배 헌금송]

그림자 섬김이 조이남 집사님



“내일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는데 손이 모자라요”
 “쉐마에 우리 부서가 발표 해야하는데 함께 하실분이 필요해요”
 “우리 구역을 함께 섬기실 분이 있어야 해요~~~”
 “우리 맛난 음식 해서 *** 댁에 찾아 가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 댁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 ~~~”
 “우리 나물 뜯으러 가요”
 “뜨게질 가르쳐 주세요요”
 “헌화 싸인업하고 싶은데, 직접 하고 싶어요. 도와 주세요요”

이 모든 질문에 나오는 답은 “네에 알겠습니다.” “몇시에 어디로 가야하지요?” 혹은 “몇시에 만나요~~~”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제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조.이.남 집사님을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천 명의 군사와 만 마리의 군마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수의 군사와 군마를 이르는 말, 천군만마를 얻는다는 기분을 저는 자주 경험하였습니다.

깡깡거리며 힘들어하는 제게 자주 하시는 말씀은 그냥 통과하자며 저의 무거운 감정을 사뿐이 들어주시고, 하얀 치아를 들어내시며 날려 주시는 미소는 백만불, 아니 그보다 더 귀합니다. 이리도 축복이 많은 저는 다른분들께 필요했던 그 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하며 반성해봅니다. 부끄럽습니다.

깊어져 가는 올해의 가을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예배자, 조이남 집사님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딸이 되어 보겠습니다.

고딩 아들 딸을 돌보시느라 바쁜 엄마 조집사님께서 매 주 준비하시는 우리 보스톤한인교회 본당과 교회 구석구석의 아름답고 창조적인 꽃들을 볼때마다 집사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함을 듬뿍 느낍니다. 이런 귀한 분을 우리 보스톤한인교회에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그리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편집자 주(註)> ‘칭찬합니다’ 코너는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우님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코너로 칭찬하시는 분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황신재 정승신 (John & Monica)의 9, 10월의 기도제목



그간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사방에 느껴집니다. 도시를 감싸고 있는 안데스산맥을 덮었던 눈들이 녹으면서 모든 가지 봉우리를 트입니다. 이 한 계절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칠레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내의 건강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꾸준히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정부의 의료혜택 가운데 침술이 포함되어 큰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치유보다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공 선교사역이 큰 감격 속에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남아공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처음으로 아메리카대륙을 넘어 타 문화권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차이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함에는 장애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참가자 전원이 선교에 대한 땅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 앞에서 나누는 그들의 간증들을 들으며 우리의 노력과 수고보다 더욱 풍성한 미래가 보였습니다

브라질 강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브라질 Atibaia 베이스에 있는 전임 간사들과 인근 베이스 리더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 성경이 읽히네”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82년 브라질을 떠난 후 처음으로 포르투갈어로 하는 강의라 내심 걱정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큰 은혜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성경에 대한 열정과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결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의기간중 현재 브라질에서 성장하고 있는 Lagoinha 교회 저녁 예배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참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브라질을 자주 방문하게 될 것 같아 더욱 포르투갈어 실습에 매진해야겠습니다.

9월은 성경의 달 - 열심히 공부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현지 대학생들을 위한 성경 읽기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칠레 독립절 주간을 맞아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긴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초청해서 식사와 함께하는 이 모임을 통해 말씀이 역사하는 한 달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0월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를 방문합니다

10월 초에 선교사 대회가 파라과이에서 열립니다. 그 시간에 맞춰 현지 대학생 모임들을 방문하여 리더들을 훈련하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어 성경이 읽히네” 소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Corrientes 도시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 대학생 연합 수련회에 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역사와 계시”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역사의식과 계시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1월에는 두명의 사역자들과 태국을 향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YWAM 대학 사역자 컨퍼런스가 11월 5 - 8일까지 태국 콘켄에서 열립니다. 저는 앞으로 칠레 사역을 이끌어 갈 저희 사역의 30대 사역자 두 명과 함께 참석합니다. 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는 총 한 달 간의 일정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희 사역자들의 관계와 사역의 안목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칠레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거나하게 술에 취한 동행을 옆에 두게 되었습니다. 남미를 처음 여행한다는 이 청년은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접퍼 안주머니에 넣어온 맥주를 연거푸 들이켜며 제가 읽는 책이며 작업하는 컴퓨터의 화면을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다짜고짜 크리스천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시작하면 전개될 상황을 직감하고 짧은 긍정으로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대로 이 청년은 물어보지도 않은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악과 아픔과 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아픔 때문에 신을 부정하고 있다면.... 만약 이 세상에 일어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선을 이야기해 드리면 신을 믿으시겠냐고....”

그러고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동기는 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선의 배가라고....

그러자 그 청년은

“That’s very interesting (참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You feel its interesting because someone is interested in you (당신이 흥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어떤 분이 당신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다양한 아픔과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위에 셀 수 없이 많은 그분의 선하심을 흔적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박노아 선교사

July 19, 2024

평안하신지요? 오하이오 영스타운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6월 중순 경 미국에 도착하여 교회들을 방문하며 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번 달 말까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주에서 교회들을 방문중이고 또 선교대회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팔월 초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두어 주 보내고 이집트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에 아픈 사연들이 많고 당장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때, 저희가 일하는 카이로의 신학교에도 돌아봐야 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가을부터 MDiv 과정에서 공부할 Andrew Ayoub 학생입니다. 그의 소천하신 아버지는 저희 부부가 아끼고 격려한 졸업생이었고 이슬람 브라더스의 기운이 센 델타지역에서 여러 개척교회 사역을 하던 헌신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해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Andrew도 다리에 큰 상처를 입어 수술을 세 번이나 받을 만큼 고생 하였습니다. 둘째는 지금 ThM 과정에서 공부하는 Hany Ishaq 목사님입니다. 나이는 삼십대 후반에서 사십 초반, 차분하게 목회를 10년째 잘 하던 중 림프선 암 판명을 받고 키모테라피 중입니다. 뻘한 박봉에 카이로를 오가며 그 힘든 치료를 받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 선교동역자들은 개인적인 기부를 요청하고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드립니다. 선교부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네이션이라도 두 학생의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August 24, 2024

이장로님,

메일 감사드립니다. 통장에 \$2375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작지 않은, 특히 신학교의 두 학생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암치료를 하는 Hany 목사님 (ThM 학생)과 이번 MDiv 과정에 들어온 Andrew (MDiv 학생)에게 \$1000불씩 전달하고 \$375불은 제가 분별해서 추후에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겠습니다. \$1000불을 이집트 파운드로 환전하면 대략 48000 LE가 되는데 이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의 4-5개월치에 해당합니다. Hany 목사님의 경우 Cairo를 오가며 chemotherapy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Andrew의 경우엔 Delta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다 소천하신 그의 선친이 줄 수 없는 경제적 지원을 대신하며 그의 가족에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제가 직접 전달하고 장로님께 감사 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과 선교부 그리고 온교우들에게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멀리 있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 교우들에게 어떻게 감사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스톤한인교회 식구들!



가을 느낌이 부쩍 드는 요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름에 저희 가정은 뉴저지로 이주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보스턴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10대인 2001년 미국입국 후 홀로 첫 주일출석을 시작으로 20대 대부분과 30대를 짝 함께 한 동지같은 우리 교회를 갈 때마다, 주일마다 항상 가족, 친지들 만나는 기분으로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쿨내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지라 교회 첫 출석 후, 씬플라워로 직진해서 찬양인도와 킨더반을 맡았었고, 힘든 유학 초년생 시절, 아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며, 주일날은 온 맘 다해 주님을 섬길테니 학업 및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걱정을 내려놓겠다는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들어 주신것도 또 하나의 소중한 간증거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 1부 부장집사님 가정덕에서 감사하게도 땡스기빙 때마다 친히 집을 오븐해주셔서 풍성한 음식과 함께 배우자 기도에 대해 알려주신 것도 훗날 소중한 추억이었으며, 덕분에 나에게 맞는 소중한 착한 짝을 만나는데도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대학원을 뉴욕으로 가게 되어서 잠시 보스턴을 떠났었지만, 새끼새가 홀로서기 연습을 하다가 등지에 돌아오는 것처럼 학교 도서관, 캠퍼스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박상철 형제와 함께 학업을 마치고 보스톤 한인교회 부부청년부로 다시 복귀해서 감회가 새로웠던 그 때 기억도 새록새록하네요. 그 이후, 부부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축복으로 찾아온 쌍둥이, 승아/지아 육아와 바쁜 직장생활로 좌충우돌하며 힘들때마다 육아동지들이 가득한, 의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 부부청년부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올 해 여름에 박상철 형제가 뉴저지에서 치주과 병원을 시작하게 되어서 처음 가정을 이루었던 뉴욕/뉴저지로 다시 이주 하게 된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근 20년을 다닌 나의 동지 보스톤한인교회를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짧은 생각을 무한히 뛰어넘으시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잠깐 머물러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진 뉴저지에 잠시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라 이주가 아직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긴 합니다. 박상철 형제는 뉴저지 Lake Mohawk이라는 그림같은 호숫가 전경이 펼쳐져 있는 지역에서 어르신 환자분들 진료에



전념하며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각자 다른 반에 배정이 된 승아/지아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3학년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치의 여유도 없었던 육아의 굴레에서 살짝 벗어나 이제는 종종 예전에 남편이랑 데이트하던 맨하튼에서 다시 점심을 같이 할 기회가 생겼으며 그 때마다 아.. 이런 여유로운 호사를 누려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웃곤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아이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원하던 저희 집 셋째, 미니 골든두들, 귀염둥이Gwen 이 우리집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스턴 한인교회 식구들~!

이렇게라도 저희 가정 소식을 전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뉴저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 방문하실 때 연락주시면 맛있는 밥 한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뉴저지에서 마음을 담아, 박상철, 이해원, 박승아, 박지아 올림



찬양 이야기 I - 찬송이야, 찬양이야?

최현구 장로

살롱! 보스톤한인교회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최현구 장로입니다. 찬양팀을 인도하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들을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울타리를 통해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홍보 위원회와 한울타리 편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찬송’과 ‘찬양’에 대해 나눌까 합니다.

‘찬송’과 ‘찬양’은 상호대체 가능하게(interchangeably) 사용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용(混用)하곤 하는데, 한글로 번역되어 쓰일 때 찬송과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송[讚頌, 기릴 찬(讚), 칭송할 송(頌)]: (~를) 기리고 칭송함,

찬양[讚揚, 기릴 찬(讚), 나타날 양(揚)]: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히브리 성경(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버전)에 찬양과 찬송을 의미하는 단어들 많이 나오고 이 또한 interchangeably 사용되고 있지만,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הללה, αινεω)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הגדלה, ψαλω)

상반절에 사용된 הללה (Tehillah, 테힐라)는 헬라어로 번역될 때 ‘αινεω (ainesow,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하반절에 있는 הגדלה (Zammerah, 쟈머라)는 헬라어 성경에서 ψαλω (psalow, 노래로 찬양하다, 찬송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영어 성경인 King James Version (KJV)과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도 각각 ‘praise’와 ‘sing praise(s)’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KJV] While I live will I praise the LORD: I will sing praises unto my God while I have any being.

[NIV] I will praise the LORD all my lif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as long as I live.

이렇게 성경의 원문을 바탕으로 보면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으로 정의되고, ‘찬양’은 ‘(찬송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찬송가, 복음성가, 복음찬송, 찬양 (흔히 말하는 노래/음악 형태의), 그리고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회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짧은 글 안에 개요를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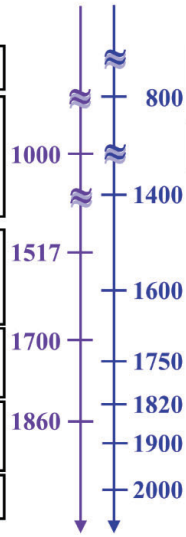


교회 음악사

| |
|--|
| 고대 성가 (~6세기) |
| 그레고리안 성가 (6-10세기) - 제창성가(Unison Chant)의 형태 - 12세기에 다성음악(Polyphony)으로 발전 |
| 종교개혁 - 라틴어가 아닌, 쉬운 음악 찬송의 필요성 대두 (찬송가, Choral/Chorale) |
| 오라토리오/칸타타/복음찬송 - 영국: Issac Watts, Charles Wesley |
| 복음찬송 - 미국: L.Mason, W.Bradbury, F.Crosby |
| CCM (1960-현재) |

서양 음악사

| |
|----------------------------|
| 고대 음악 (~800) |
| 중세 음악 (800-1400) |
| 르네상스 음악 (1400-1600) |
| 바로크 음악 (1600-1750) |
| 고전주의 음악 (1750-1820) |
| 낭만주의 음악 (1820-1900) |
| 현대 음악 (20세기-현재) |



현대에는 교회 음악사가 서양 음악 역사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음악사가 곧 서양 음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양 음악의 근간이 교회 음악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세기말 교황이 된 그레고리오 1세가 구전되어 오던 찬양곡/성가곡을 집대성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였고, 그의 사후 약 300년이 지난 10세기에 이르러 제창성가 (Unison Chant)의 형태가 정립되었는데, 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찬양곡/성가곡에 그의 이름을 붙여 '그레고리안 성가 (Gregorian Chant)'라 부르게 됩니다. 11~12세기를 거치면서 제창성가 형태가 다성음악 (Polyphony)으로 발전하게 되고, 새로운 음악의 전환기인 르네상스 음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음악 발전의 중심축이 교회 음악에서 세속 음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1517년의 종교개혁은 교회 음악과 서양 음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변곡점의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361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예배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교적인 신앙의 표현 형태로 여겼기 때문), 찬송의 창작을 금하는 규례를 정하고, 지정된 사람 외에는 회중들이 예배에서 찬송하는 것도 금지시킴으로 종교개혁 전까지 예배에서 회중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어 있었는데,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는 결과물의 하나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과 더불어 마틴 루터가 주도한 예배 개혁의 일환은 일반 성도들이 예배에서 찬양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라틴어 찬양곡의 가사를 자국어로 바꾸고 멜로디를 단순화하는 일과 새로운 찬송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독일찬송(Chorale)'**이 탄생합니다. 한편, 교회 음악이 일반 회중을 더 고려하여 일반 성도 중심의 발전이 주를 이루게 되어 교회 안에서 전문 음악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던 음악이 교회 바깥의 연주회장, 상류층 저택이나 왕궁을 통해 발전하게 되고, '음악은 음악 자체로 순수해야 하며 음악을 위한 음악이 되어야 한다'는 '절대음악'의 시대를 여는 고전파 음악으로의(Classical Music) 전환이 이루어지며 바로크 시대까지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던 교회 음악과 일반 음악이 두 갈래로 나뉘어 발전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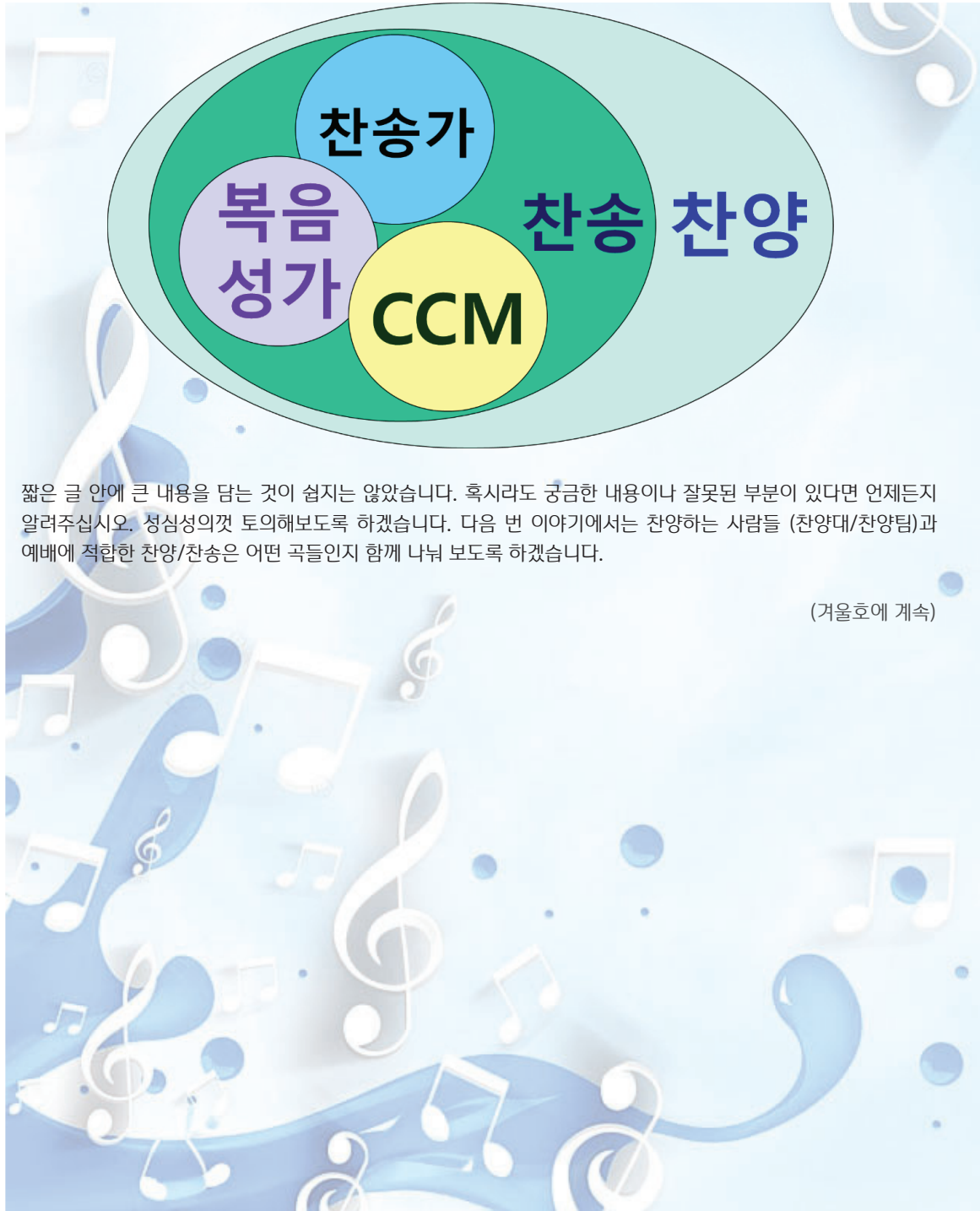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Isaac Watts (1674-1748)의 출현으로 예배에 사용되던 찬양곡인 시편가(Psalmody)에서

일환으로 감리교 창시자 John Wesley의 동생 Charles Wesley가 많은 찬송 가사를 작사하여 찬송집을 출판하고 부흥집회를 통해 널리 퍼뜨림으로 **'복음찬송/복음성가(Gospel Songs)'**의 효시를 이루는 시발점이 됩니다. 복음찬송의 발전은 1세기 후 미국의 심령 부흥운동과 복음찬송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여러 작사/작곡가들 (Ira D. Sankey, Lowell Mason, William B. Bradbury, Fanny Crosby)에 의해 수많은 복음찬송이 만들어지고 불리우게 됩니다. 시편가 또는 Chorale 가사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복음찬송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가사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직접적인 하나님 찬양을 포함하여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적 간증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에 이러한 복음찬송/복음성가들을 모아 '복음찬송집' 또는 '복음성가집'을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교단에서 다른 버전으로 편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Hymnal, a book of hymns)'**의 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들도 당시에는 혁신적인 복음찬송/복음성가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주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추구하는 반문화 (Counterculture)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히피 운동 (Hippie movement)이었는데, 당시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던 음악 장르인 "Rock'n Roll"과 맞물려 자유분방한 히피운동의 상징적인 행사가 되었던 Woodstock Festival 과 Woodstock Music and Art Fair 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도를 넘어서는 무분별적 자유와 비절제적 히피운동에 환멸을 느껴 히피운동에서 떨어져 신앙을 회복한 젊은이들 중 기존교회의 보수적인 교리와 가르침에도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Jesus Movement 였습니다. 갈보리 채플 교회의 Chuck Smith 목사가 주변의 재능 있는 뮤지션들을 모아 음악적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음악을 만들도록 했는데, 합창(SATB) 형식으로 찬양하는 찬양대를 중심으로 한 예배와 찬양이 주를 이루었던 그 당시에 기존 교회 음악과 다른 성향의 음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표현하는 찬양의 형태로 새로운 크리스천 문화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Jesus Music 으로 불렸지만, 후에 크리스찬 음악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영향을 주면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이라는 장르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교회 음악의 상업성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둔 예배음악 (Worship Music)을 지향하는 그룹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발전하게 됩니다. CCM 이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도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가사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CCM의 가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지만,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의 문맥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현대 Gospel Music 은 크게 세 갈래로 발전해왔는데, 1) 흑인영가에 Jazz, R&B, Soul 등의 요소가 가미되어 발전한 Black Gospel, 2) 남부에서 백인들이 Gospel Music 에 Country Music 요소를 혼합해 발전시킨 Southern Gospel, 그리고 3) 백인들의 Gospel 에 Rock, Pop 및 다양한 현대 음악 요소가 결합되어 발전된 CCM 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찬송가, 복음성가/복음찬송, CCM 을 포함하는 것이 찬송이고, 찬송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글 안에 큰 내용을 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성심성의껏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이야기에서는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대/찬양팀)과 예배에 적합한 찬양/찬송은 어떤 곡들인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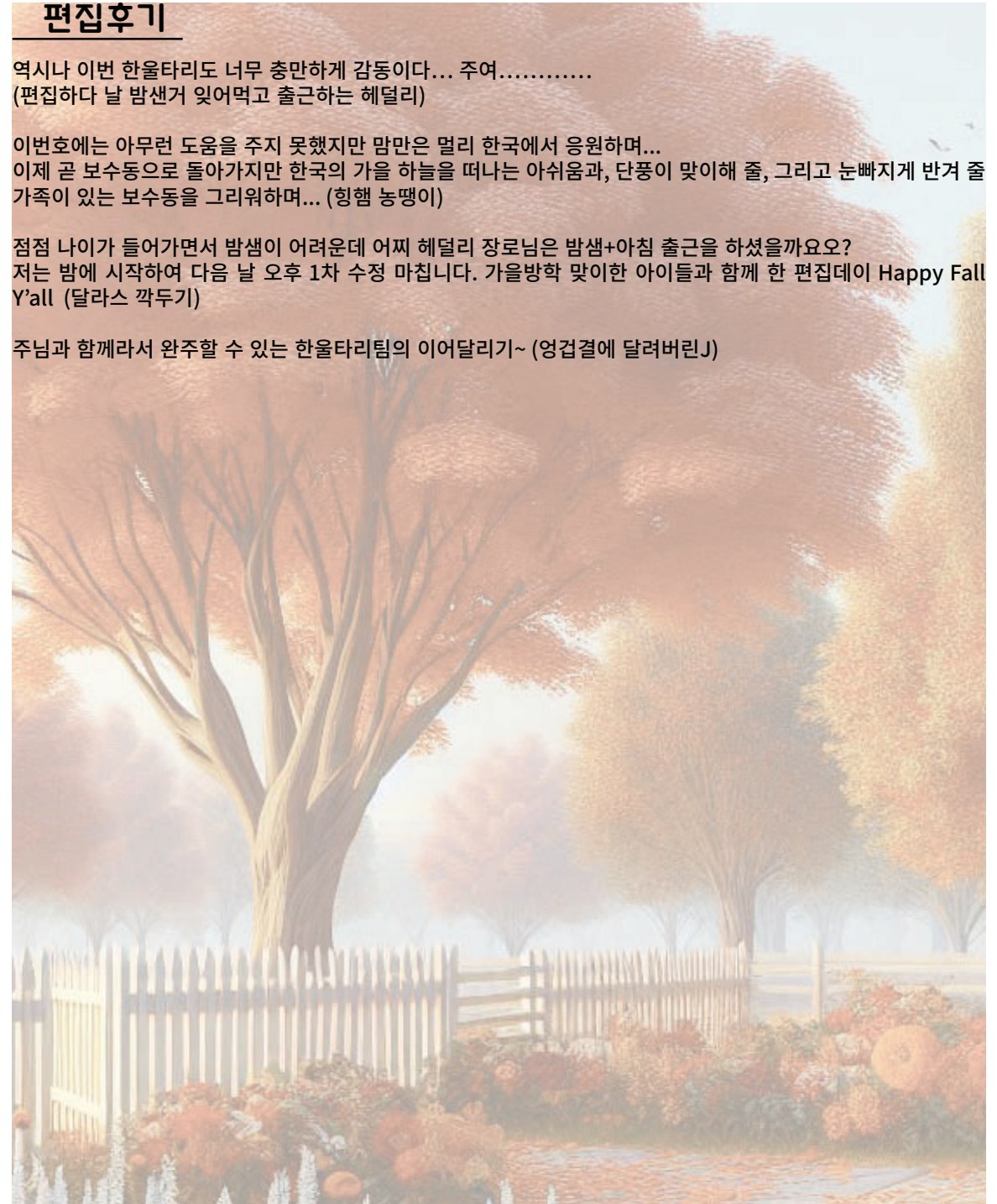
편집후기

역시나 이번 한울타리도 너무 충만하게 감동이다... 주여.....
(편집하다 날 밤샘거 잊어먹고 출근하는 헤덜리)

이번호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맘만은 멀리 한국에서 응원하며...
이제 곧 보수동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의 가을 하늘을 떠나는 아쉬움과, 단풍이 맞이해 줄, 그리고 눈빠지게 반겨 줄 가족이 있는 보수동을 그리워하며... (힝햄 농땡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밤샘이 어려운데 어찌 헤덜리 장로님은 밤샘+아침 출근을 하셨을까요?
저는 밤에 시작하여 다음 날 오후 1차 수정 마칩니다. 가을방학 맞이한 아이들과 함께 한 편집데이 Happy Fall Y'all (달라스 깍두기)

주님과 함께라서 완주할 수 있는 한울타리팀의 이어달리기~ (엉겁결에 달려버린J)



BECOME A DONOR

We are urgently searching for a donor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for baby Stella, who was born in September. Shortly after her birth, Stella was diagnosed with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SCID), a rare and life-threatening condition that severely affects her immune system. Without a functioning immune system, even common infections can be deadly for Stella.

The only hope for her to lead a healthy life is to receive a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as soon as possible. We are desperately seeking a compatible donor who can provide Stella with the life-saving treatment she needs. Your support and help in finding a donor could be the key to giving Stella a chance at a healthy future.



1. REGISTER ONLINE

Answer simple questions about your medical history to make sure you meet health guidelines



2. SWAB CHEEK

Your sample will be tested, and your genetic type will be added to the NMDP Registry.



3. GET MATCHED

Because of the genetic complexity of matching donors to patients, it could be a few months or many years before you're matched to a patient.



4. DONAT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re counting on you to keep your promise to donate, if needed. You could be someone's only hope for a cure.



Scan the QR code for more information.

my.bethematch.org

